



# Poland

폴란드사무소

## 2021년부터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배경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의 8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인간도 이러한 해양생물을 섭취함으로써 간접 피해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유로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EU는 2018년 10월 플라스틱 사용 규제안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2021년 규제 적용을 목표로 플라스틱 식기(포크, 칼, 숟가락, 젓가락, 접시), 빨대, 플라스틱으로 만든 면봉, 풍선스티크,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및 폴리스티렌(polystyrene) 원료로 생산된 식품 용기 등 10개의 규제 적용 제품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식품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도 25%로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플라스틱 사용 규제안의 효과

EU는 연간 생산되는 2,5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25만톤의 폐기물만을 재활용하고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플라스틱 병의 90%를 분리수거해 재생하고, 플라스틱병을 만들 때 재생 플라스틱을 25% 포함해야 한다. 2030년까지는 30%의 재생 플라스틱을 포함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정책이 시행되면 220억 유로(약 29조 3,500억 원)로 추산되는 유럽의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 파괴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연간 65억 유로(약 8조 6,700억 원)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폴란드 대형 유통회사들의 대응책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발맞춰 폴란드의 대형 유통회사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까르푸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것이며 PB 브랜드 상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폴란드 비드고슈츠에 위치한 한 까르푸 매장에서는 고기, 치즈, 과일, 오이, 피클 등의 제품을 개인 용기에 담아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Lidl 역시 자연에서 분해되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징을 도입해 규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을 20% 적게 사용하고 2025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지를 PB 브랜드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Tesco는 5월 중순부터 매장에 입점해 있는 모든 식당에서 일회용품 식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으며, PB 제품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은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 Key Point

#### 장기적 수출 위해 친환경 패키지 준비

- 한국 수출업체들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EU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한 친환경 패키징으로 개선해 수출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경우 높은 회수율과 재활용을 위해 마개 또는 뚜껑이 부착된 제품에 한하여 환경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유통이 가능하다. 병 음료 수출 기업은 이 점을 고려해 패키징에 변화를 준다면 EU 수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출처 : [www.cbsnews.com](http://www.cbsnews.com), [ec.europa.eu](http://ec.europa.eu), [fortune.com](http://fortune.com), [www.esmmagazine.com](http://www.esmmagazine.com), [www.huffingtonpost.kr](http://www.huffingtonpost.kr),  
[www.freshplaza.com](http://www.freshplaza.com), [www.europarl.europa.eu](http://www.europarl.europa.eu)